

보도시점 2024. 8. 5.(월) 배포 2024. 8. 5.(월)

**“정부, 히로시마 아픔 결코 잊지 않을 것...
밝은 미래를 위해 나아갈 수 있도록 모든 지원”**

- 이상덕 재외동포청장 5일 정부 대표해 참석한
‘히로시마 한국인 원폭 희생자 위령제’ 추도사서 밝혀...
- 사이토 데쓰오 국토교통성 대신 등 일본측 정관계 인사들도 희생자 기려...
한일 정상, 작년에 위령비 동반 참배

- 이상덕 재외동포청장은 5일 “원폭 한국인 희생자분들은 물론 일본 땅에 남아계신 동포들께서 지난 세월의 아픔을 치유하는 가운데 후손들이 밝은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노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고 밝혔다.
- 이 청장은 이날 오전 히로시마 평화기념공원 내 한국인 원폭 희생자 위령비 앞에서 열린 위령제 추도사에서 “윤석열 정부는 히로시마의 아픔을 결코 잊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 그러면서 “정부는 다시는 79년 전의 참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인류의 공동번영과 항구적 평화가 정착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는 굳은 다짐을 제단에 바친다” 고 약속했다.
- 1970년부터 매년 8월5일 열린 위령제는 재일동포 피폭 희생자를 추도하는 대표적인 행사다.
- 55번째를 맞는 올해 위령제에는 이 청장을 비롯해 임시홍 히로시마 총영사와 김이중 재일본대한민국민단 단장, 김기성 히로시마민단 단장 등 재일동포들이 참석했다.

- 또 일본 측에서도 사이토 데쓰오 일본국토교통성 대신(장관급)과 히라바야시 아키라 공명당 의원, 히라구치 히로시 자민당 히로시마현련 회장, 미카미 에리 입헌민주당 의원 등 정관계 인사와 피폭자 관련 단체 등 200여 명이 위령비를 찾았다.
- 재외동포청장이 정부를 대표해 위령제에 참석한 것은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다.
 -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5월 G7 계기 히로시마방문 중 역대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피폭 1세 및 후손 20여 명과 만났고,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 함께 역사상 최초로 ‘원폭 희생자 위령비’에 동반 헌화했다.
 - 또한 윤석열 대통령은 한달 뒤 추석을 맞아 히로시마 원폭 피해 동포 42명을 고국으로 초청해 위로했다.
- 7월31일 취임한 이상덕 청장은 “부임한 후 첫 방문지가 히로시마라는 점을 뜻깊게 생각하며 앞으로도 동포들의 권익신장을 위해 노력하고 재외동포사회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겠다”고 말했다.
 - 이 청장은 앞서 4일 리가로얄호텔 히로시마에서 민단과 한인회 등 히로시마 동포 40여 명을 초청해 동포간담회를 개최했다.

담당 부서	재외동포협력총괄과	책임자	과장직무대행	이희경	032-585-3197
	재외동포협력총괄과	담당자	사무관	박정환	032-585-3199
담당 부서	아주러시아동포과	책임자	과장	정선호	032-585-3172
	아주러시아동포과	담당자	주무관	김담	032-585-3177

오늘 저는 79년 전,
원폭 투하로 불행하게도 유명을 달리하신
수 만명의 한국인 희생자분들을 추모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전쟁의 참화와 차별로 얼룩진 고통의 역사가 있었음에도
지난 세월 우리 정부가 희생자분들의 고통과 아픔을
함께 나누지 못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그러한 마음을 바탕으로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한일관계 회복을 결단하셨고,
작년 이 자리에서 양국 정상은 처음으로 어깨를 나란히 하고
희생자분들을 추도하는 계기까지 마련하셨습니다.

피해자 여러분, 그리고 가족 여러분,
그리고 80만 재일동포 여러분,
윤석열 정부는 히로시마의 아픔을 결코 잊지 않을 것입니다.

동시에 희생자분들은 물론,
일본 땅에 남아계신 동포분들께서,
지난 세월의 아픔을 치유하는 가운데,
후손들이 밝은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노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또한, 대한민국 정부는
다시는 79년 전의 참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인류의 공동번영과

항구적 평화가 정착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는
굳은 다짐을 오늘 이 제단에 바칩니다.

희생자분들께서 부디 과거의 무거운 짐은 모두 내려놓으시고
고통 없는 곳에서 영면하시기를 기원합니다.